

Print ISSN: 2233-4165 / Online ISSN: 2233-5382
doi:http://dx.doi.org/10.13106/ijidb.2017.vol8.no6.51.

A Study of Family Cohesion on Self-Regulation Ability of the Elderly

노인의 가족결속력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Myung-Hee Jung(정명희)*

Received: September 15, 2017. Revised: October 11, 2017. Accepted: November 15, 2017.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activity of the elderly and recognition of family cohesion of the elderly who are exposed to the current aging society. In addition, the study has delved into the method of family cohesion improvement through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based on the mediator effect of how the results have effects on the elderly's self-control capabilit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has targeted the elderly who are attending the elderly university among users in seven community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The study has also conducted a survey by the format of a half-structured questionnaire. It is aiming to investigate the elderly's family cohesion with children and their self-control capability, and understand their satisfaction of social activity to help successful elderly life. The study has suggested the following as mentioned. First, the study analyzed that the perceptual factor of family cohesion with children would be deducted based on advanced researches. Secon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would be analyzed through the relational analysis between the elderly's family cohesion and social activity.

Results - The family cohesion with childre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happiness and it showe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with improvement of the elderly's self-control capability. Therefore, creating fellowship through meaningful conversation with children would be needed.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and consultant service would be offered to build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ag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rough this, the elderly will be able to have not only better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but also increased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as well.

Conclusions - It is needed that not only supporting policies for children who take care of aged parents but also that the elderly who need long-term care could meet their children whenever they want through increased numbers of sanatoriums operated by cities and countries. In addition, the nation would offer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continuously so that people receive the benefits from sanatoriums located in the locality of children's residence beyond the elderly's residence. Moreover, social infra would be established as well.

Keywords: Family Cohesion, Self-Control Capability, Social Activity of Elderly, Welfare for the Age.

JEL Classifications: H75, I31, J15, R13.

1. Introduction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고, 200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으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될 것이며, 2026년에는 20% 이상이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의 의학의 발달

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발생이라는 염려스러운 측면으로도 보여지고 있다(Manzoli, Villari, Pirone, & Boccia, 2007).

우선 고령화 사회, 즉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알아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순서라 할 수 있겠다(Lee, 2010).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노인을 부양 및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인 노년관념을 지속해오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이라면 고독, 의존, 질병과 빈곤 등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수발과 부양 등 사회문제로의 접근하는 시작이 대부분인데, 이는 노인의 연령에 따른 상실과 쇠퇴 노화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ungwon University, Korea.
Tel: +82-43-830-8642. E-mail: jmhsuject@hanmail.net

각한다. 그러나 노화의 다른 측면으로 성장과 활력, 지혜와 삶에 대한 만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노년의 삶에 대한 활력을 주기위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성공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노년기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와 노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확대된 노년기와 긍정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노후 안녕(well-being)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삶에 대한 연장이 아닌 안전화되고 성공적인 노후 삶에 대한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Lee & Lee, 2014).

도시화, 정보화, 산업화 현대화의 사회변화가 가져온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족 구조의 변화이다.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필요한 사회활동에 깊은 관련이 있는 요인 중 하나가 가족구조라 볼 수 있는데, 고령화 노인의 증가에 대비해서 저출산,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 여성의 사회지위 향상, 핵가족 단위의 가족구조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 노인부양가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가족기능은 점차 약해졌고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의 노인들은 과거 세대 간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사회 구조와 문제에 당혹해 하며,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Lee & Kim, 2012).

'가족'이란 노인에게 있어 안정된 보금자리이며 노후의 성공적 노화와 행복감을 좌우하는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노인의 성인자녀간의 결속은 노인의 삶의 안녕을 조절하며, 우울증도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노인의 노후 생활만족은 높아진다고 인지하고 있다. 가족결속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에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결속력이 노인에게 중대한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이외에 가족결속과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설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결속과 사회활동과의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의심을 품고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사회활동과 가족결속력을 살펴보기 보다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Park & Bae, 2005).

우리시대의 노인들은 전 세대들보다 더 연장된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다. 노인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주기를 인생주기에서 전체 삶의 4분의 1내지 3분의 1이나 되는 시간으로 많은 인생주기를 차지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삶이 연장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노인의 집단을 65세 이상의 인구만을 하나의 노인인구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증가된 20~30년의 노년주기는 21세기 인간의 다원화 시대에선 더 이상 단일 집단으로 볼 수 없다. 노인들 중에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남의 도움 없이 생활이 힘들기도 하다. 또 어떤 노인층은 아직도 부모공양이나 자식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노인층은 손자들 양육과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노인은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장수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년주기의 20~30년 범위주기를 한 범주나 하나의 그룹으로 연구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년주기를 세분화하고 연령에 따른 삶의 주기를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Kim, Ko, & Kwon,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의 가족결속력의 인지가 노인의 사회활동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들이 노인의 자기조절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매개효과를 통해 그 집단 간의 차이를 통해

가족결속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Theoretical Background

2.1. 노인의 가족결속력

가족의 결속력은 가족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을 주고 가족의 위기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힘을 주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 가족 결속력이라는 개념은 최초로 Durkheim의 사회이론에서 파생되어 역사적으로 가족구조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 간의 응집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결속도라는 개념은 비슷한 응집성, 상호의존성, 상호부조, 가치관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의존 지속성, 의존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대 간의 의존성 범위는 응집도와 가족통합성의 측정이 될 수 있다(Kim, Kim, & Seo, 2011).

이와 관련하여 가족 상호관계 모델(family circumplex model)은 Olson 등이 개발한 모델로서 적응력과 응집력 및 화합성의 세 가지 차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집력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가족구조 내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 상호간의 감정적인 결합으로 정의되며, 적응력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 역할 구조, 역할에 대한 상호 관계에 관한 규칙을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정의 된다. 응집력과 적응력, 화합성은 모두 대화에 의해 매개된다고 가정하는데 각기 그 정도에 따라 응집력은 연결된, 분리된 상태로 나누어지고 적응력은 구조적인, 혼란한 상태로 나누어진다. 이 모델에 따라 결속력과 적응력을 각 3-4개 항목으로 측정하도록 측정된 척도가 바로 가족 결속력 척도(FACES)이다(Kang & Kim, 2002).

노인들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2008년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59.9%로 2006년 53.7%에 비해 6.2% 높아졌으며 나이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 연령별 가족관계 만족에 차이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는 가족에 관계간의 차이를 보고 이를 예측하고자 한다. 가족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기위해 가족결속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Park & Bae, 2005).

2.2. 다층적 노인집단과 가족결속력 및 사회활동의 관계

고령화, 저 출산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오늘날의 노인세대와 과거 세대와의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째,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는 데 비해 사회적 정년 은퇴 시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년의 노후기간이 증가하고 노인의 연령에 따라 층이 나누어지며, 이를 통해 같은 노인층이라도 이질적이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고도의 산업화과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다양화 되고 있다. 셋째, 생활/가계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정기적인 저 출산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Chang, 2004).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에 기초한 노부모 부양에 관한 의식이 강한 한국에서 고령화문제와 가족문제는 일치할 수밖에 없

다. 노년기의 장기화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지원책은 자녀와 배우자로 구성된 가족중심의 지원책이기 때문에 고령화는 노인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는 노후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노후의 사회활동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관점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Kim, 2015).

먼저 연령에 의한 사회활동을 연구한 내용은, 전기의 노인 사회활동이 후기의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연구와 그 차이가 없다는 연구와 비교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전기, 중기, 후기의 노인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가 지배적이다. 연령과 가족결속력을 가족구성원들의 지지 정도와 노인의 나이 간에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노인의 나이에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을 높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결속력이 증가한다. 노부모와 자녀 간 결속도가 높으면 노인의 생활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노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양 정도, 만족, 가치관 정도, 활동정도 등 가족관계의 유지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만족이 높게 나타나며, 노년기에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건강, 경제적 안정만큼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노인의 노후 만족 및 사회 활동에 대한 만족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가족결속도라고 하였다(Kim, Ko, & Kwon, 2007).

노인의 세분화 필요성과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라 많은 연구가 존재하였다. 가족결속력이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인구학적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할뿐, 가족결속력, 사회활동을 다른 요인에 대한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3. 노인 사회활동의 개념

노인의 사회활동이란 의미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사회활동이라는 개념이 개인이나 노인 전체에 대한 개념정의가 쉽지 않은 것처럼, 노인의 사회활동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및 선행연구, 의견은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어떻게 정의되는 살펴본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Kim, 2016).

노인의 사회활동을 일자리, 여가, 교육, 자원봉사, 종교활동으로 구분 하였으며, 경제활동, 여가활동, 자원 봉사활동, 종교활동, 친목모임, 여가문화, 동창회, 정당 및 시민 단체 활동으로, 정치집단, 경제 권리집단, 문화활동, 공동체 활동, 사회/레저 활동, 사적/이익집단 활동 등으로 취미, 교육, 운동, 단체, 자원봉사, 종교 등으로 구분하여 노인 사회참여의 개념정의하고 있다. 원론적인 개념을 언급하면, 상호교류 과정의 규칙 또는 형태를 가진 활동으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행위로 정의하였다(Han & Yoon, 2001).

세부적인 노인의 사회활동이란 일, 업무, 자원봉사, 친목, 취미 및 여가, 종교, 정치, 교육 등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노인의 사회참여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일, 자원봉사, 종교활동, 취미 및 여가활동, 교육으로 범주 한정하였으며 정치, 친목은 제외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정부가 노인사회참여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Chang,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사회참여활동이란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정책을 기반으로 2가지로 구분하여 종교 사회활동, 여가 사회활동으로 유형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4. 노인 자기 조절능력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빨라지고 노인층도 급증하면서 노년기 삶에 대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은 노년기 삶이 아동, 청장년기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어떻게 하면 노년기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인의 인간으로 성공적인 삶은 결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어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노후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언급할 수 있겠으나, 노인의 인지에 의한 감정조절능력이 노인의 노후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Chung & Lee, 2011).

노인은 통상적으로 나이에 따라 감정조절능력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년기에는 재정적, 인지적 신체적 능력, 대인관계가 저하되더라도 생의 후반에서는 일부의 감정기능은 유지되고, 일부는 향상된다고 한다. 노인은 자신이 느꼈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 표현해야 될 수준까지를 포함하며 종합적으로 감정조절을 한다. 현대에 와서 감정조절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감정조절능력은 개인의 만족감, 안녕감과 성공에 필요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감정조절능력은 심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감정조절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심리적 상실뿐만 아니라 자살 같은 자기 극단적 행동,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나타나 대인관계와 사회적 기능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노인은 노후에 단축된 대인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갈등을 회피, 소극적인 감정조절능력을 사용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한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방향을 위해 감정조절을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축소된 자세이며, 능동적이지 못한 자세이기 때문에 노후의 성공적인 요인에 저해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Federico, 2005).

본 연구에서 감정조절능력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에 대하여 구분되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표현하여 정서적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며, 본 논문에서는 자기조절능력으로 통일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3. Methodologies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7개 복지관의 경로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자신들이 느끼는 자녀들과의 가족결속력과 자기조절능력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사회활동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노인이 느끼는 자녀와의 가족결속력의 지각요인을 도출 하여 분석한다. 둘째,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사회활동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영향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셋째, 가족결속력 지각요인이 자기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실증 분석을 통해 가족결속력 지각요인이 노인의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다섯째, 실증분

석 결과,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 연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SPSS 19.0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유행태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결속력 지각요인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공통 요인 추출을 위해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에 있어서는 요인들 간 상호독립성 검증에 유용한 베리맥스(Varimax rotation: 직각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항목 척도를 사용하여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자기 조절능력 요인, 사회활동에 대한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Kim, 2014).

연구모형에서 <가설 1>, <가설 2>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 3>, <가설 4>에서는 가족결속력에 대한 자기 조절능력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통해 매개 여부를 정의하였다.

3.2. 변수척도

본 연구의 변수에 관한 척도는 아래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에 대한 척도 및 이에 매개효과를 주는 자기 조절능력에 관한 측정은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다음은 이들의 측정도구에 관한 내용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결속력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기 조절능력과 사회 활동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4. 탐색적 요인분석

초기 변수설정에서 가족결속력 변수는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가 3개로 분류되었다. 특히 친화성과 담합성은 완전히 결합하였다. 노인들이 가족결속력을 친화성과 적응성을 동일한 변수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담합성은 가족 응집성과 가족 화합성에 각각 분류되었다.

가족결속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있다.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살펴본 결과 가족 적응성은 .877, 가족 응집성은 .728, 가족 화합성은 .638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Variable Measures

	Variables	Testing Tools	Number of Questions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Monthly Income	Single question	5
Family cohesion	Family agglutination	Family agglutination Scale	3
	Family adaptability	Family adaptability Scale	3
	Family harmony	Family harmony Scale	3
	Family synthesis	Family synthesis Scale	3
	Family affinity	Family affinity Scale	3
Self-control capability	self-control capability	self-control capability Scale	3
Social activity of elderly	Leisure social activity	Leisure social activity Scale	6
	Religious social activities	Religious social activities Scale	3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Family Cohesion

Variable	Ingredient			Cronbach's α
	Family adaptability	Family agglutination	Family harmony	
Family adaptability	Adaptability 2	.822	.260	.877
	Adaptability 2	.767	.140	
	Adaptability 3	.743	.196	
	Adaptability 1	.686	.385	
	Adaptability 1	.645	.231	
	Adaptability 3	.609	-.079	
Family agglutination	Agglutination 3	.336	.882	.728
	Agglutination 1	.180	.855	
	Agglutination 2	.271	.837	
	Agglutination 1	.118	.567	
Family harmony	Harmony 1	.059	-.033	.638
	Harmony 2	.369	.162	
	Harmony 3	.360	.169	
	Harmony 2	.387	.422	

<Table 3> Self-Control Capability Factor Analysis

	Self-control capability	Cronbach's α
Self-control capability 2	.928	.832
Self-control capability 1	.848	
Self-control capability 3	.840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682, Chi-square =276.682 df = 3, significance = p<.001		

<Table 4> Leisure Social Activity Factor Analysis

	Leisure social activity	Cronbach's α
Leisure social activity 3	.829	.857
Leisure social activity 2	.778	
Leisure social activity 4	.769	
Leisure social activity 5	.745	
Leisure social activity 6	.727	
Leisure social activity 1	.727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64 Chi-square = 508.796 df = 15, significance = p<.000		

<Table 5> Religious Social Activities Factor Analysis

	Religious social activities	Cronbach's α
Religious social activities 2	.935	.897
Religious social activities 1	.924	
Religious social activities 3	.891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752 Chi-square = 371.212 df = 3, significance = p<.000		

3.5. 확인적 요인분석

초기 변수설정에서 가족결속력 변수는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가 3개로 분류 되었다. 특히 친화성과 담합성은 완전히 결합하였다. 노인들이 가족결속력을 친화성과 적응성을 동일한 변수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담합성은 가족 응집성과 가족 화합성에 각각 분류되었다. 그리고 아래 <Table 3>에서 같이 유형성은 가족 응집성과 가족 화합성에 각각 분류되었다.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본 결과 <Table 3>, <Table 4>, <Table 5>와 같이 기능적 자기 조절능력은 .832, 종교활동은 .857, 종교 사회활동은 .897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Setting up Hypotheses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 한 7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만을 한정하여 대상을 선정하였고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자신들이 느끼는 자녀들과의 가족결속력과 자기조절능력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사회활동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노년의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가정의 가족 결속력요인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가족 응집성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가족 화합성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가족 적응성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가정의 가족 결속력요인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가족 응집성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가족 화합성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가족 적응성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가정 가족 결속력 요인은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가족 응집성은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가족 화합성은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가족 적응성이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자기 조절능력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자기 조절능력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가족 결속력 요인과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은 매개효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가족 결속력 요인과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은 매개효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The Findings

4.1.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s

성별로는 남성이 62.7%, 여성이 37.3%로 남성응답자의 비율이 2배정도 많았다. 이는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가 31.9:68.1임을 볼 때,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나이는 65~70세 노인의 비율이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중졸 출신이 제일 많았으며 103명 응답 44.2%를 차지하고 있고,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Table 6>.

<Table 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en	146 62.7
	Women	87 37.3
Age	65 to 70 years	111 47.5
	70 to 75 years	104 44.7
	75 years old or older	18 7.8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graduation	103 44.2
	High school graduate	50 21.5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45 19.3
	College or higher	35 15.0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won	55 23.6
	Less than 50 ~ 1 million won	78 33.5
	Less than 100 ~ 1.5 million won	79 33.9
	Over 1.5 million won	21 9.0

4.2.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의 선행분석으로서 다중공선성의 진단과 독립변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투입된 영향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377~.716까지 분포하고 있다. 연구변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아래 <Table 7>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 중 가족 적응성은 가족 응집성($r=.557, p<.001$)과 가족 화합성($r=.587, p<.001$)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결속력의 가족 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의 가족 응집성과 가족 화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적응성은 자기 조절능력($r=.633, p<.001$)과 여가 사회활동($r=.716, p<.001$) 및 종교 사회활동($r=.551,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Family adaptability	Family agglutination	Family harmony	Self-control capability	Leisure social activity	Religious social activities
Family adaptability	1					
Family agglutination	.557**	1				
Family harmony	.587**	.377**	1			
Self-control capability	.633**	.446**	.542**	1		
Leisure social activity	.716**	.503**	.547**	.658**	1	
Religious social activities	.551**	.421**	.529**	.615**	.739**	1

** $p<.001$

특히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적응성은 여가 사회활동이 가장 높게 상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자기 조절능력과 종교 사회활동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응집성은 가족결속력의 가족 화합성($r=.377, p<.0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결속력의 가족 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결속력의 가족 화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응집성은 자기 조절능력($r=.446, p<.001$)과 사회활동 하위변인 중에 여가 사회활동($r=.503, p<.001$) 및 종교 사회활동($r=.421, p<.001$)과는 유의한 긍정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응집성은 여가 사회활동이 가장 높게 상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응집성이 높아지면 자기 조절능력과 종교 사회활동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화합성은 자기 조절능력($r=.542, p<.001$)과 사회활동 하위변인 중에 여가 사회활동($r=.547, p<.001$) 및 종교 사회활동($r=.529, p<.001$)과는 유의한 긍정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화합성은 여가 사회활동이 가장 높게 상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화합성이 높아지면 자기 조절능력과 종교 사회활동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조절능력은 사회활동 하위변인 중에 여가 사회활동($r=.658, p<.001$) 및 종교 사회활동($r=.615, p<.001$)과는 유의한 긍정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 사회활동과 종교 사회활동($r=.739, p<.001$)은 매우 높은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위계적 회귀분석

아래 <Table 8>은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위계적 회귀모델이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여가 사회활동에 가족결속력요인 중 가족 적응성($t=8.439, p<.001$), 가족 응집성($t=2.587, p>.011$), 가족 화합성($t=3.345, p>.001$)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서 매개변수인 자기 조절능력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 조절능력($t=5.089, p>.001$)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로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을 통해 <H1>은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H1-1>, <H1-2>, <H1-3>은 유의 확률 .05에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은 여가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4> 자기 조절능력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 조절능력($t=5.089,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내서, 가설 채택되었다.

<Table 8>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leisure social activities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robability of significance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1	(a constant)	.800	.198		4.408	.000		
	Family adaptability	.501	.077	.537	8.439	.000	.570	1.838
	Family agglutination	.145	.069	.159	2.587	.011	.727	1.434
	Family harmony	.192	.072	.204	3.345	.001	.695	1.502
2	(a constant)	.626	.192		3.533	.001		
	Family adaptability	.390	.078	.418	6.356	.000	.494	2.130
	Family agglutination	.114	.067	.125	2.037	.030	.715	1.459
	Family harmony	.124	.071	.132	2.073	.031	.649	1.611
	Self-control capability	.268	.069	.311	5.089	.000	.589	1.776

<Table 9>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religious social activities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robability of significance	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1	(a constant)	.664	.268		2.621	.010		
	Family adaptability	.340	.100	.307	4.047	.000	.570	1.838
	Family agglutination	.173	.088	.161	2.269	.025	.727	1.434
	Family harmony	.351	.092	.316	4.623	.000	.695	1.502
2	(a constant)	.406	.258		1.638	.107		
	Family adaptability	.177	.101	.161	1.962	.043	.494	2.130
	Family agglutination	.127	.085	.119	1.676	.099	.715	1.459
	Family harmony	.251	.090	.227	3.311	.001	.649	1.611
	Self-control capability	.387	.088	.379	5.447	.000	.589	1.776

<Table 9>은 가정이용 중에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위계적 회귀모델이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종교 사회활동과 가족 적응성($t=4.047, p<.001$), 가족 응집성($t=2.269, p>.05$), 가족 화합성($t=4.623, p>.001$)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서 매개변수인 자기 조절능력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 조절능력($t=5.447, p>.001$)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분석을 통해 <H2>은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H2-1>, <H2-2>, <H2-3>은 유의 확률 .05에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은 종교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 5> 자기 조절능력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 조절능력($t=5.447,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가설 채택되었다.

4.4. 매개 회귀분석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동일하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순서적인 측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 있는 변수이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수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구조방식과 같이 경로상의 매개 효과분석이 아닌 분석에서는 매개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Baron and Kenny (1981)는 아래의 모형을 이용하여 인과 단계적 접근(causal steps approach)방법을 매개효과 연구에 도입하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MacKinnon et al. (2002) 및 Judd and Kenny (1981)는 완전한 매개를 강조하였으며, 반면에 Baron and Kenny (1986)는 부분 매개를 주장하여, 두 연구에서 매개효과에 대한 정의가 같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매개효과 연구에서 가장 단순하고 고전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과 단계적 접근법에서는 일련의 검정들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정한다(Kim, 2014).

위의 매개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모든 영향 분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분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을 보면 Sobel test statistic($Z_{\text{값}}$)이 1.97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Two-tailed probability($P_{\text{값}}$)은 전체적으로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H4>, <H5>의 채택여부는 <Table 10>에 단계3(매개변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면, 유의확률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서, 자기 조절능력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Self-control capability analysis on social activities

Independent variables ▶ Parameters ▶ Dependent variables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Non-standardized beta value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	R ²
Family adaptability ▶ Self-control capability ▶ Leisure social activity	Step 1 (Independent ▶ Mediated)	.708	.077	12.006	.000	.653
	Step 2 (Independent ▶ Dependent)	.687	.064	14.971	.000	.736
	Step 3 (independent variable)	.495	.072	9.021	.000	.786
	Step 3 (Parameters)	.329	.067	6.313	.000	.786
Family agglutination ▶ Self-control capability ▶ Leisure social activity	Step 1 (Independent ▶ Mediated)	.491	.083	7.385	.000	.466
	Step 2 (Independent ▶ Dependent)	.476	.072	8.601	.000	.523
	Step 3 (independent variable)	.272	.068	4.836	.000	.719
	Step 3 (Parameters)	.490	.066	10.097	.000	.719
Family harmony ▶ Self-control capability ▶ Leisure social activity	Step 1 (Independent ▶ Mediated)	.611	.081	9.533	.000	.562
	Step 2 (Independent ▶ Dependent)	.531	.072	9.652	.000	.567
	Step 3 (independent variable)	.288	.073	4.908	.000	.717
	Step 3 (Parameters)	.465	.068	8.990	.000	.717
Family adaptability ▶ Self-control capability ▶ Religious social activities	Step 1 (Independent ▶ Mediated)	.708	.077	12.006	.000	.653
	Step 2 (Independent ▶ Dependent)	.632	.082	9.742	.000	.571
	Step 3 (independent variable)	.337	.092	4.333	.000	.671
	Step 3 (Parameters)	.482	.086	6.896	.000	.671
Family agglutination ▶ Self-control capability ▶ Religious social activities	Step 1 (Independent ▶ Mediated)	.491	.083	7.385	.000	.466
	Step 2 (Independent ▶ Dependent)	.474	.085	6.881	.000	.441
	Step 3 (independent variable)	.335	.082	3.366	.002	.657
	Step 3 (Parameters)	.570	.079	9.253	.000	.657
Family harmony ▶ Self-control capability ▶ Religious social activities	Step 1 (Independent ▶ Mediated)	.611	.081	9.533	.000	.562
	Step 2 (Independent ▶ Dependent)	.610	.083	9.217	.000	.549
	Step 3 (independent variable)	.345	.087	4.810	.000	.679
	Step 3 (Parameters)	.503	.081	7.827	.000	.679

<Table 11> Sobel Test for Verifying Mediating Effect on Self-Regulating Ability

Independent variables ▶ Parameters ▶ Dependent variables	Sobel test statistic(z값)	Two-tailed probability(P값)
Family adaptability ▶ Self-control capability ▶ Leisure social activity	5.64496165	0.00000005
Family agglutination ▶ Self-control capability ▶ Leisure social activity	5.97710863	0.00000001
Family harmony ▶ Self-control capability ▶ Leisure social activity	6.63244660	0.0
Family adaptability ▶ Self-control capability ▶ Religious social activities	6.01454932	0.00000001
Family agglutination ▶ Self-control capability ▶ Religious social activities	5.79844349	0.00000002
Family harmony ▶ Self-control capability ▶ Religious social activities	6.44726949	0.0

가족결속력과 여가 사회활동과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대한 영향분석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변수에 영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Sobel Test를 한 결과 위의 <Table 12>와 같이 나타났다. Sobel test statistic(z값)을 보면 긍정적인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의미의 1.76보다도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화합성 ▶ 자기 조절능력 ▶ 여가 사회활동, 가족 화합성 ▶ 자기 조절능력 ▶ 종교 사회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 조절능력 매개효과에는 가족결속력에서 가족 화합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구조가 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H6>, <H7>의 채택 여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Sobel test

statistic(z값)이 모두 1.76 이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가설 채택을 확인하였다. 가족결속력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데 자기 조절능력이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가설검증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아래 <Table 13>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Table 13> The results of the research hypothesis

Hypothesis	Research hypothesis	Adoption
Hypothesis H1.	가정의 가족결속력요인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1-1	가족 응집성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1-2	가족 화합성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1-3	가족 적응성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ypothesis H2.	가정의 가족결속력요인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2-1	가족 응집성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2-2	가족 화합성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2-3	가족 적응성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ypothesis H3.	가정 가족결속력 요인은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3-1	가족 응집성은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3-2	가족 화합성은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3-3	가족 적응성이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ypothesis H4.	자기 조절능력은 노인의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ypothesis H5.	자기 조절능력은 노인의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ypothesis H6.	가족결속력과 여가 사회활동에 영향에서 자기 조절능력은 매개효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Hypothesis H7.	가족결속력과 종교 사회활동에 영향에서 자기 조절능력은 매개효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lection

5. Summary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가정 만족도, 종교 사회활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을 이용하는 데 가족결속력과 자기 조절능력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자기 조절능력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여가 사회활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이용 중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후에 노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요인 들로서 활동가능하다.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활동의 범위를 세분화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노인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녀와의 가족결속력에 심리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노인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도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진실한 대화를 통한 유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노부모와 자녀들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이 생각하는 생활만족,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에만 치우쳐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노부모와 자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특성을 각각 파악하고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과 자녀가 느끼는 노부모와의 결속에 어떤 일치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가족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노부모 부담 및 돌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언제든지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구의 직영 요양시설의 증가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의 주소지 소속에 대한 혜택을 전국 어디서든지 자녀들의 주소지의 요양시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7개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경로대학에 출석하는 대상자만

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둘째, 설문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자의 개인변인 등을 고려하여할 때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Chang, J. K. (2004). A Study of the Elderly's Attitudes to Dating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2), 31-54.
- Chug, K. S., & Lee, S. M. (2011). Special Them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Identity of Migrants: Korean National Identit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1), 45-73.
- Federico, C. (2005). Racial perceptions and evaluative responses to welfare: Does education attenuate race-of target effects?. *Political Psychology*, 26(5), 683-697.
- Han, G., & Yoon, S. (2001). Living arrang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1(2), 163-178.
- Kang, H. S., & Kim, T. H. (2002). A Qualitative Study on the Spouseless Elder's the Sexual Desire and Types of its Solu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3), 127-151.
- Kim, J. J.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Traditional Market Healing Stories for Social Integration: Focused on traditional market in Seongnam-si, Gyeonggi-do. *Journal of Social Contribution*, 1(1), 2-5.
- Kim, J. J. (2014). A Study on the Role of the Leader in the Organizational Life for the Social Integration and the Changing Consciousness among the Traders: Focused on traditional market in Seongnam-si, Gyeonggi-do. *Journal of Social Contribution*, 1(2), 6-10.
- Kim, J. J. (2016). A Study on the Change of Conscious Thinking Process and Moral Reason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Social Contribution*, 3(1), 2-6.
- Kim, Y. K. (2015).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Values of Masstige & Consumer Happines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3(1), 105-118.
- Kim, S. Y., Kim, S. G., & Seo, H. J. (2011). Depression and resilience in late life widowhood: Testing mediation model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165-196.
- Kim, S. Y., Ko, S. G., & Kwon, J. H. (2007).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on Widowed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3), 573-596.
- Lee, D. G., & Lee, M. J. (2014).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Image and Corporate Performanc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2(9), 101-112.
- Lee, J. U. (2010).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S. Korea: Differences by educat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3), 709-726.
- Lee, J. H., & Kim, K. K. (2012). Determinants of Korean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cusing on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Educational Sociology Review*, 22(3), 1-24.
- Manzoli, L., Villari, P., Pirone, G. M., & Boccia, A. (2007).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77-94.
- Park, C. S., & Bae, N. R. (2005). A study on the remarriage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2), 115-132.